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업종일등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80% 수준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환경문제(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88억 원

-모투자신탁 94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2015년 12월 11일 모자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5년 01월 18일)

- 클래스 A : 2014년 08월 05일
- 클래스 A-E : 2014년 08월 08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19일
- 클래스 C-F : 2022년 12월 15일
- 클래스 C2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8.24%	27.74%	41.25%	90.67%	78.82%	110.83%	70.36%	707.42%
클래스 A	8.10%	27.26%	40.16%	87.71%	73.02%	100.68%	56.62%	111.40%
클래스 A-E	8.14%	27.39%	40.44%	88.48%	74.52%	103.29%	60.12%	123.24%
클래스 C	8.05%	27.08%	39.75%	86.63%	71.00%	97.17%	52.03%	185.10%
클래스 C-E	8.09%	27.23%	40.08%	87.51%	72.66%	100.06%	55.82%	150.92%
클래스 C-F	8.17%	27.51%	40.71%	89.21%	75.95%	105.78%	-	97.39%
클래스 C2	8.06%	27.13%	39.85%	86.88%	71.47%	97.99%	53.17%	167.62%
클래스 C3	8.07%	27.16%	39.93%	87.12%	71.96%	98.77%	-	41.92%
클래스 C4	8.08%	27.21%	40.06%	87.46%	72.38%	102.98%	-	101.39%
클래스 C5	8.09%	27.24%	40.09%	87.54%	72.68%	100.09%	55.85%	182.27%
벤치마크	7.32%	23.06%	37.19%	75.63%	58.71%	88.44%	46.66%	35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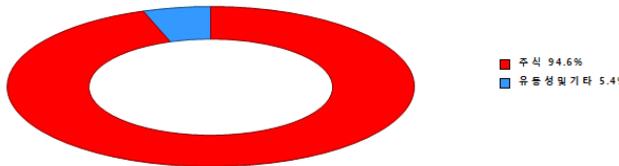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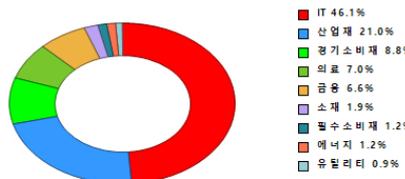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1.0	SK스퀘어	금융	2.0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2.7	기아	운송장비.부품	1.8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2.6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1.7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2.5	이수페타시스	전기.전자	1.7
현대모비스	운송장비.부품	2.3	KB금융	금융	1.7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0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255% (판매 0.45%)
- 클래스 C : 총 연 2.30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805% (판매 1%)
- 클래스 C-F : 총 연 0.835% (판매 0.03%)
- 클래스 C2 : 총 연 2.175% (판매 1.37%)
- 클래스 C3 : 총 연 2.05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3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805%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클래스 C, C-E, C-F, C2, C3, C4, C5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KOSPI는 전월 대비 7.32% 상승한 4,214.17pt, KOSDAQ은 1.40% 상승한 925.47pt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1월부터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 BOJ의 금리인상 우려 등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2월 자체는 상승세로 마감은 했으나, 큰 틀에서는 11월부터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라클 실적 전망치 하회 및 데이터센터 투자 철회, 브로드컴의 마진 둔화 불안감 등으로 KOSPI 지수는 4,000pt를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버블 이후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 외국인 순매수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AI 버블 우려가 희석된 반도체, 로봇과 자율주행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화학, 화장품 등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환율 방어 움직임으로 1,433.9원으로 하락 마감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57.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자체별로는 기관(5.2조원)과 외국인(3.5조원)이 순매수한 반면, 개인(-7.7조원)은 순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및 인터넷 업종의 종목선택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전자부품과 기계 업종에서의 배분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현대모터에버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그룹 내 각각 S1 및 차량 SW 사업과 액츄에이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Physical AI 사업 진출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또한 생체 내 단백질간 상호작용을 관측/분석하는 단백질 빅데이터 기업인 프로티나가 AI 신약실체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상대적 초과수익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고객사의 수주 물량 이원화 우려로 조정받은 이수퍼타시스와 완성차들의 전기차 프로젝트 축소에 따라 수주 감소가 예상되는 엘엔에프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매매로는 수주 및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는 조선과 주가 급등으로 valuation 부담이 높아진 반도체 소부장 일부를 차익 실현하였으며, 반도체 업종과 인터넷 업종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월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과 12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긴축 우려가 완화되었고, 마이크로 실적을 시작으로 다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지수는 바닥을 다져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에너지, 식품 CPI를 감안시 단기적으로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매크로 지표는 현재의 유동성 확대와 경기 호조세를 강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부 정책,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 흐름의 환경에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주식시장 지원책이 글로벌로 차별화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테마의 확대, 수주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기존 주도주의 재상승 가능성과 CES 효과 등에 따른 새로운 테마의 출현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예상됩니다.

2025년 시장이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해 견인되었다면, 올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기업이익의 개선 여부라고 판단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가 안정과 성장 둔화 우려가 혼재된 국면에 놓여 있으나, 한국 시장은 수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KOSPI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427조원까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에도 반도체 중심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반도체 및 AI 밸류체인으로 확대했던 투자 대상 중에서, 올해 이익 가시성과 펀더멘털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선반영된 상황을 감안해 시장 베타 확대는 제한하되, 반도체, AI 인프라 등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로봇 등 중소형 종목을 통해 운용의 유연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바운드 수요 증가와 한중 관계 회복에 따른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는 내수 및 중국 수출 관련주 중 실적 회복 가시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월 중립 수준으로 차익 실현한 방안 및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를 감안해 재차 비중 확대 시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연초 포트폴리오 구축 과정에서는 단기 주가 모멘텀보다는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 재무 안정성,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조선, 기계, 헬스케어 업종 내 종목 선별과 함께 Physical AI 및 우주 관련 테마에 대한 추가 비중 확대 기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주가의 실적 민감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1월 중순 이후 2025년 4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컨센서스 대비 실적 괴리가 큰 종목에 대해 비중 조정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코스닥 시장 지원 정책을 감안하여, 중기 이익 성장성이 확보된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닥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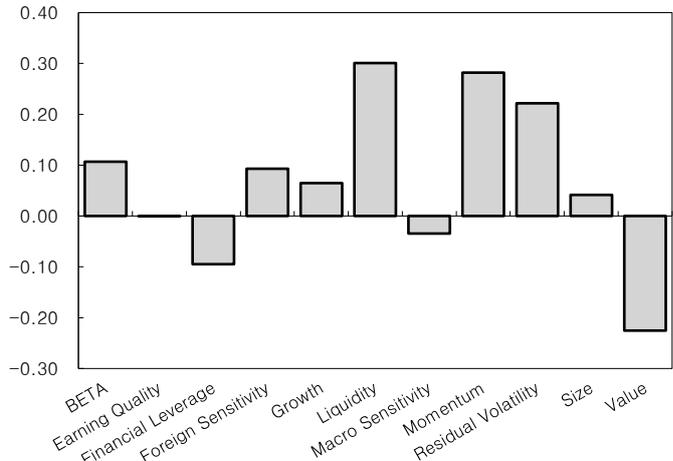
	2025-12-31	2025-11-28
Active Risk <sup>1</sup>	3.55%	4.17%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sup>2</sup>	1.69%	2.20%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1.41%	2.26%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29%	-0.06%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sup>3</sup>	1.86%	1.98%
베타	1.12	1.15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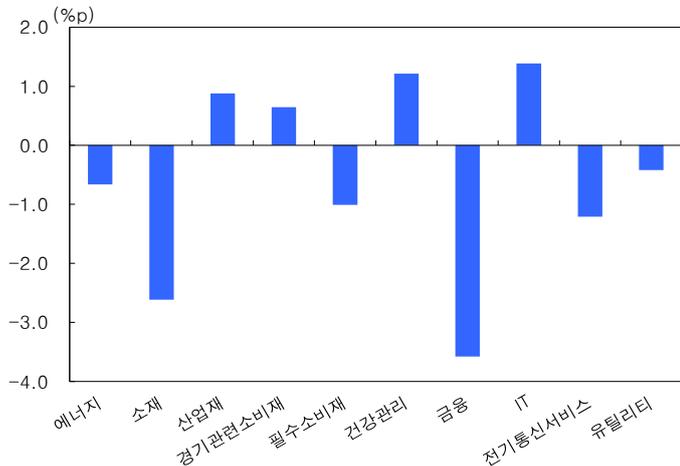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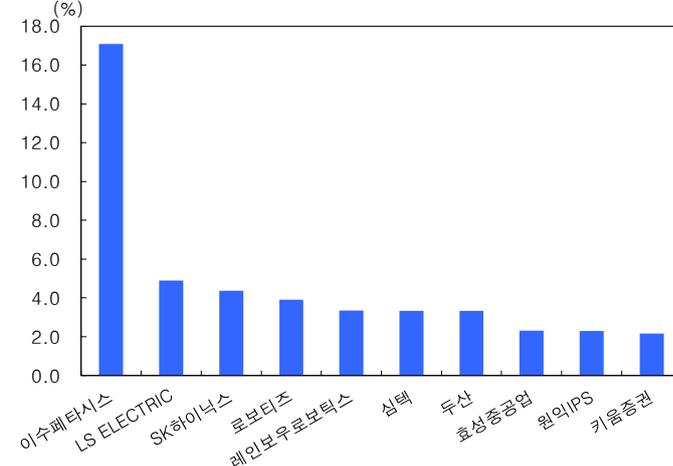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11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2월말 현재, 업종일등ESG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3.55%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11개 종목 증가하여, 100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금융',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IT', '에너지'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1월말 기준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효성중공업'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